

대학가 치솟는 원룸 월세...시름 깊어진 대학생

전면 대면수업에 외국인 유학생 회복세...광주 월세방 수요 급증 고물가 속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 걱정

“개강까지 3주 정도 남았는데 방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축 원룸은 월세를 45만원까지 달라고 하고 오른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생각하니 우울하네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월세방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4년 만에 전면 대면 개강이 예고되고 외국인 유학생까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대학가 인근 월세방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월세비용이 오르고, 방을 구하더라도 고물가에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올라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버거워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남대는 올해 모든 강의가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조선대도 지난해 일부 수업에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던 것을 올해는 모두 대면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코로나 이후 대학이 올해 학사일정

을 전면 대면 수업으로 공지하면서 학생들이 몰려 대학가 월세가 올라가는 추세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깨끗한 신축 원룸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지만 대면수업 전환으로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서 10여년째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다는 김희철 공인중개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신축 원룸의 경우 월세가 인근 원룸보다 평균 5만원~10만원 정도 비싼 편이지만, 그마저도 현재 매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에브리타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원룸을 계약하려 하는데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렸어요”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조선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원룸촌도 비슷한 실정이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코로나 19 이후 3년여 만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조선대 근처의 경우 원룸이 많지 않아 다른 곳보다 월세가 더 오르고 있

다”고 분석했다.

지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조선대 인근 7평 원룸의 경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수준으로 전남대 근처보다 비싼 편이다”며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10%정도 월세가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외국인 유학생 수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학가 지취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호남대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2020년 949명에서 2021년 773명까지 감소했다가 2022년 79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대도 2020년 184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이 2022년 291명으로 늘었다.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까지 공실이었는데 집주인이 신규 계약을 준비하며 지난해 38만 원이던 월세를 45만 원까지 올렸다”며 “코로나 이후 감염에 취약한 고시원에 대한 선호가 사라지고 원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린 것 같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월세가 오르는 또 다른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꼽았다.

광주시 동구 충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기요금 등이 오르면서 공공전기 등 건물 관리비용도 늘

었다”며 “특히 금리인상으로 집주인의 부담이 커진 것이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동시에 인상되면서 학생들의 생활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학생은 익명으로 에브리타임에 “평소 1만원 나오던 가스비가 지난해 8만원이나 나왔다”고 글을 남겼다. 댓글에는 “6시간마다 한번 보일러를 트는 데도 한달에 가스비가 6만원 나왔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전남대출신 취업준비생 김선주(여·28)씨는 “과다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월세가 지금 사는 곳 보다 비싸다”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올라 생활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호남대에 재학중인 박모(25)씨는 “이번에 원룸 계약을 연장하는데, 집주인이 38만 원인 월세를 40만 원 정도로 올리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며 “공공요금뿐 아니라 월세까지 아르바이트 월급때고 모 든 것이 오르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이번 학기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사측 유리한 임협 대가 금품 시내버스 노사 간부 징역형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해달라며 돈을 주고 받은 시내버스 임원들과 노동조합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찬우)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노조 모 지부 전 지부장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임중재와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대표 B(8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원 C(69)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남의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임금 협상과 퇴직연금제도 시행 과정에서 사측에 우호적으로 행동해 달라며 총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A씨에게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임금 차액 2598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수한 돈이 반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상원 열사 유족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5·18당시 시민군 대면인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마지막까지 항거하다 최후를 맞은 고(故) 윤상원(1950~1980)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봉메)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2000만원, 형제·자매 6명에게 각각 23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윤 열사의 죽음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한정 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윤 열사가 사

망했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적상 명백하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 열사는 광주시 광산구에서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1978년 들보아학에 참여해 노동운동을 했다.

1980년 5·18이 일어나자 시민군 대면인으로 활동한 그는 계엄군 진압작전을 하루 앞둔 5월 26일 외신기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오늘 패배한다고 해도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을 겁니다”고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윤 열사는 다음날 새벽 옛 전남도청 2층 민원실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전사 참배 철화하고 사죄하라” (사)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등 5개 단체가 16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전사 동지회는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행사를 철화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집행부에 대해서도 “화해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여론을 모을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참배 행사를 열고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독선이다”고 비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합원 집 찾아가 금품 제공 조합장 선거사범 6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지역 조합원 A씨와 B씨는 지난해 30일 다른 조합원의 자택을 찾아가 3만원 상당 롤케이크와 현금 5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다른 조합 소속 C씨는 지난 18일 조합원의 자택

을 방문해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누며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인 D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원해 달라며 다른 조합원 E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E씨 또한 해당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16일 조합원들에게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2명의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 건강원 약탕기 폭발 3명 부상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건강원에서 약탕기가 폭발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1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건강원의 약탕기가 폭발했다. 이 폭발로 건강원에

있던 주인 A(여·70)씨와 B(여·70)씨, 다른 손님 C(여·81)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손님 한 명은 안면부에 부상을 입었지만 모두 경상으로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당한 손님들은 모두 이 아파트 주민들로

확인됐다. 근처에 주차된 차량 4대도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약 13㎡(4평)크기의 건강원에는 총 5대의 약탕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이날 사고는 한대의 약탕기를 가열하던 중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은 약탕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 목 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 목 장 의 장 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